특집 : 정보격차해소 방안 사례

정보소외계층 사업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독서논술
"꽃 피우는 아이들" 운영

지영순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사서
jiys0928@hanmail.net

정보소외계층사업과 공공도서관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예전에 비해 공부방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도 기존의 학생중심에서 점차로 어린이나, 주부, 그리고 직장인의 관심과 이용도 증대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자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식자원에의 접근과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이 정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정작 수혜가 더 요구되는 소외된 계층 즉,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우들에 대한 서비스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공공도서관은 독창적인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 ·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까지....

10여년 동안 도서관에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은 부모의 관심 속에 있는 일반적인 어린이들이 많은 문화적 수혜들을 받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위탁아동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어린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5년 한수이북 처음으로 문을 연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정보 ·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만의 독창적인 독서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생활화 및 문화 · 복지 ·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정보소외계층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서비스를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두천시에는 아동사회복지시설 2기관의 11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용만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센터 3곳에 69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현지방문등 여러 여건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기로 하였으며, 이곳의 아이들은 도서관 이용은 물론 도서관문화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아동들은 경제생활의 어려움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부모의 이혼등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미아 및 위탁 아동으로 어린시절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가슴 저린 사연을 간직한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다.

소외계층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지 않고는 예산과 인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만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꿈나무 도서관에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꿈나무 어머니 자원봉사자가 있다. 독서지도가 가능한 6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저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영어동화, 독서지도, 나만의 책 만들기등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다.

3개월 동안 소외계층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인 준비없이 자원봉사자분들과 마음과 뜻만 갖고 운영하다보니 많은 한계에 부딪쳤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잠시 운영되어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 더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소외계층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지 않고는 예산과 인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서들의 전문성 확보 및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발전과 더불어 복지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문화활동이 행해지고 있어, 도서관이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에서도 도서관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감성의 복지서비스 "꽃 피우는 아이들" 운영

도서관에서 운영한 소외계층 서비스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였으나, 장기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정보소외계층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독서논술 "꽃 피우는 아이들"을 공모한 결과 선정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독서논술 "꽃 피우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2006년 9월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30명으로 확대하여 매주 월,수 운영하였다.

진행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내 눈으로 세상보기 등의

“꽃 피우는 아이들”의 수업목표

독일의 인지학자 슈타이너는 인생의 주기를 7년 단위로 본다. 0~7세까지는 몸과 신체를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8세에서 14세는 감성을 키우는 시기이다. 수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은 8세에서 14세의 아이들로 감성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감성을 키우고 몸의 감각을 깨워주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한다. 식물처럼 성장하며 스스로의 꽃을 피워 나가기 위해서는 노작활동과 관찰하기, 빛 그림그리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처받고 닫혀진 마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다.

독서논술 활동으로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과의 만남을 통해 지적감수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감성의 복지서비스를 펼쳤다.

지적 감수성을 가진 아이로 … 세상의 아름다움 경험하기

주요활동 사례로는 우리문화 체험하기로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서관 자원봉사 어머니들과 함께 송편빚기와 제기차기등으로 조물조물 예쁜 송편을 만들어 먹으면서 나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도서관에서 가졌으며, 또한 “파주 장단콩 마을” 체험현장 나들이를 통해 두부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청국장 만들기등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함께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그 외에 독서논술 활동으로 나만의 공책 만들기, 나무이름표 만들기, 흙으로 나 표현하기 등 활동을 통해 그동안 불안하고 산만하던 아이들의 태도나 성품이 많이 차분해졌으며, 자신의 아픔을 딛고 차츰 밝은 모습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삶을 배우고 생각하며 꿈꾸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꽃 피우는 아이들” 운영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서관과의 만남을 통해 꿋꿋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준 기회라 생각한다.

가시적인 운영 성과로는 아이들의 서투르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차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도 곧잘 들어주며, 사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학년 수영이는 수업 중 대충과제를 끝낸 후 이제 뭐해요? 또 뭐해요? 하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쳤다. 계속 겉도는 아이를 수업과제에 참여시킴으로써 개인작업의 완성도를 키우도록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가장 보람을 느끼게 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 원수 님의 시 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모양과 향기를 지닌 아이들에게
도서관의 관심과 노력이 아이들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들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는데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 따뜻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평생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어릴때부터 도서관과 책의 이미지를 친구처럼 느낄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접근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시간활용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한 점이다.

향후계획

꿈나무도서관은 2007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꽃 피우는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다함께 겨울나기"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공동체를 중요시 했던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통해 나와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세시 풍속으로 체험해 보는 보는 조상들이 삶"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내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혼혈아동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도서관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독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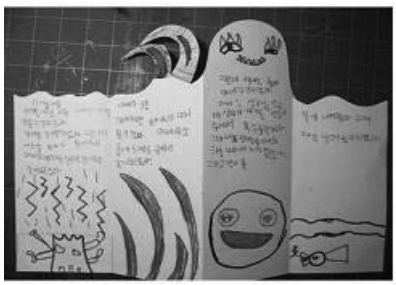
앞으로 계층간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 문화소외계층 사업이 일회성 선심행사가 아닌 사랑과 감성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개정된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규정에 따르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듯이 향후 도서관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아동, 노인,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수업전 후 변화된 내용

– 나만의 책 만들기 –

살고싶지 않다, 죽고 싶다등의 자신의 아픔이 드러난 이야기 위주를 꾸몄지만, 차츰 수업을 하면서 흙으로 나 표현하기에는 밝은 모습의 자기 자신을 표현

상처받은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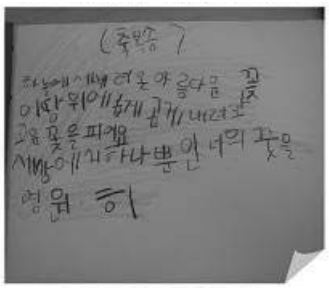
자신의 아픔이 나타남

자기 자신의 내면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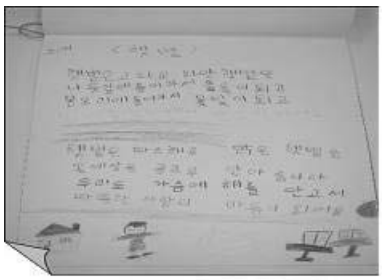
– 공책에 시 노래 쓰기 –

대강 쓰고 검정색을 사용하여 색감이 어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 노래에 맞게 밝고 아름답게 공책을 꾸밈

여는 시와 노래 공책 쓰기



대강 쓰고
검정색을 사용



마음의 문을 열고
아름답게 꾸밈